

日本今年度 原乳計劃生産 減産體制突入

「이 글은 日本 全酪新報 3월 1日字에 掲載된 內容을 번역 발췌한 것이다(편집자註)」

1. 指定団体別 原乳出荷割當量 配定

日本 中央酪農會議에서는 計劃生産 實施以來 처음으로 今年度の 目標數量을 削減하여 指定 団体別 原乳出荷割當量을 前年計劃對比 3.13%가 減少된 6,713,700噸으로하여 46都道府縣으로 配分하는 案을 審議決定하였다.

今年度の 目標數量은 原乳需給委員會의 需給豫想量의 中間值 7,059,600噸에 指定団体の 몫(Share) 95.1%를 乘한 6,713,000噸으로 하였으며 이에따라 今年度の 計劃生産은 削減 實施되는 것으로 正式決定되었다.

指定団体別 數量은 前年度 割當數量에서 一律 削減(30%), 自主申告(30%), 原乳生産豫測調査(40%)의 比率로 削減된 것이다.

中央酪農會議는 其間 計劃生産을 施行해 오면서 自主性を 尊重하기 爲하여 指定団体別로 原乳生産割當을 해왔으나 今年度에는(酪)農協 및 個個農家に까지 出荷割當量을 設定 計劃生産의 完全達成을 圖謀하였으며 또한 計劃生産의 年度途中의 修正은 需要가 尋常치 양을 境遇의 下向修正만을 하는 것으로 하고 需給이 好轉되더라도 増産은 하지 않기로하며 이런 경우 過剩乳製品의 放出로 對應키로 하였다.

또한 自己縣内の 飲用乳消費가 伸張하였을 境遇에는 飲用乳用 割當量의 1%를 限度에 加算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럴 境遇에도 加工乳用 數量을 減少하여 總割當量에서는 増量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基本的으로 이번 決定한 指定団体別의 總量割當에서는 年度를 通

해서 割當量이 増量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2. 中酪, 原乳需給對策을 農水産省에 建議

中央酪農會議側은 史上 처음 計劃生産이 減産體制로 突入하게 됨에 따라 政府에 強力한 特別措置를 要請하기로 하고 農水産省에 對하여 「原乳需給調整에 關한 要請」을 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乳製品의 輸入을 禁止하고 特히 偽裝乳製品의 輸入을 規制할 것
- 2) 實効있는 消費擴大策 및 자연치-즈振興策의 檢討
- 3) 畜産振興事業團에 依한 乳製品의 購買水準을 提高
- 4) 補償對策에 對한 助成措置
- 5) 飲用乳市場의 價格 및 流通의 混亂을 막기 爲하여 乳業工場의 介入調査等 強力한 行政指導

3. 加工原料乳 保證價格 2.8% 減少

今年度の 加工原料乳 保證價格이 前年對比 2.8% 減少된 kg當 87円57錢으로 引下되었다.

日本에서는 近年에 引上要因은 전혀 없고 乳量의 增加를 비롯하여 配合飼料 價格의 引下等 引下要因이 많아 限度數量만은 그대로 둔채 保證價格은 2円50錢, 基準去來價格도 63錢을 引下措置하였다.